

문1 -4번

① 광개토왕명 청동그릇(호우)은 장수왕 3년(415)고구려에서 주조,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되었다.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고구려에서 제작된 청동호우가 경주에서 발견된 이유는 400년 광개토왕의 군사적 도움에 힘입어 신라에 침입한 왜의 공격을 막아 냈다. 이로 인하여 신라의 정치는 고구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기타 여러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청동호우가 경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② 부여에서 발견된 사택지적비는 의자왕 때 백제귀족인 사택지적이 세련된 문장으로 불당을 세운 내력을 기술하고 있고(유학 발달), 또한 도가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깊었을 보여주는 유물이다.(현재는 부여박물관 소장하고 있다)

③ <울진 봉평비>는 울진 지방이 신라의 영토로 들어감에 따라 주민들의 항쟁이 일어나자, 신라에서는 육부(六部) 회의를 열고 대인(大人)을 보내어 벌을 주고, 다시 대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를 세웠다는 내용이다. 신라가 동북방면으로 진출하면서 건립한 비로, 법흥왕 11년(524)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신라 사회 전반에 걸치는 여러 면들을 새롭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또한 법흥왕 때의 율령반포와 육부제의 실시, 왕권의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④ 신라영토인 충북 중원에서 발견된 고구려비는 이곳이 고구려의 판도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고구려는 스스로 천하대국임을 자부하면서 신라를 東夷(동이), 신라왕을 寐錦(매금)이라 낮추어 멸시하기도 하였다.

문2-3번

(가)사료는 부여의 4조목이다. 사료에서 12배(배상)는 고구려에서도 보이는데 고구려는 부여의 계통이 고구려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면들이 많다. 특히 부여4조목은 고조선의 8조법과 비교해서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고조선의 8조법은 화폐사용이 언급되지만 부여의 4조목은 그렇지 않다.

(나)사료는 삼한의 소도이다. 소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천군'이라 것을 통해서이다. 천군은 삼한의 제사장이고 그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을 소도라 한다.

ㄱ은 고구려, ㄴ은 부여, ㄷ은 삼한의 제천행사, ㄹ은 부여

문3-2번

- ① 신윤복의 미인도는 간송미술관 소장
- ②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일본 덴리 대학 소장
- ③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호암미술관 소장
- ④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4-4번

④ 규장각은 정조 때 만들어진 왕실 도서관으로, 조선 정부는 전쟁 등 비상시에 유실될 가능성을 고려해 강화도에 예비 서가인 외규장각을 만들었다. 여기에 있는 책들은 임금이 보기 위한 것이라 종이의 질과 그림 등이 매우 우수하였다. 그런데 이 책들이 병인양요 당시 약탈되어 프랑스로 옮겨졌다.

문5-1번

사료는 1948년 유엔소총회에 결정된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대한 반대의사로 김구가 삼천만 동

포에게 올리는 글이다. 김구는 남한만의 단독선거와 단독정부를 수립을 반대하면서 평양의 김일성에게 남북협상을 제의, 진행했으나 결국 통일을 위한 노력은 실패하였다.

② 김성수와 송진우의 주도로 결성된 정치세력이다.

③ 1945년 10월 이승만 귀국후 결성된 정치세력이다.

④ 1944년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한 여운형은 해방직후 안재홍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문6-3번

(가) 발해의 무왕 업적이다. (나) 발해의 선왕 업적이다.

ㄱ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긴왕은 문왕 업적이다.

ㄴ 당의 산둥 공격은 무왕 업적이다.

ㄷ 견훤은 선왕의 연호이다.

ㄹ 문왕의 딸 무덤인 정혜공주묘는 돌방무덤의 형태로 고구려처럼 모줄인천장구조로 되어있다.

문7-3번

사료에서 '조선 전기 도적' 과 '명종' 등을 통해 16세기 임꺽정의 난을 알 수 있다.

① 광대출신으로 승려 세력과 함께 봉기한 사람은 장길산이다.(숙종)

② 허균의 홍길동전이다.(광해군)

④ 정여립의 모반사건으로 선조때이다.

문8-1번

(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말한다.

(나) '수륙 무역 장정'과 '속방'이라는 말을 통해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ㄱ 1875년 윤요호 사건이후 강화도 조약은 체결되었다.

ㄴ 일본상인의 내지 통상 진출 1882년 조일수호조규부록개정(속약)을 통한 거류지 50리 확대 시작과 1883년 조일무역규칙(통상장정)의 최혜국대우 조항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다.

ㄷ 갑신정변 이전에 체결되었다.

ㄹ 천주교의 포교권인정은 1886년 조프통상조약에서 처음 인정되었다.

문9-2번

사료에서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 '일본 강도---혁명' 등을 통해 1923년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의열단 강령)

① 이완용 처단 시도(이재명, 1909)

② 나석주는 의열단 단원으로 동양척식회사 폭탄 투척(1926)

③ 장인환은 스티븐스 사살(1909)

④ 안중근은 이토 사살(1909)

문10-2번

ㄱ 갑신정변14개조(1884)

ㄴ 갑오개혁 1차(1894)

ㄷ 대한국국제(1899)

ㄹ 현의6조(1898)

문11-3번

자료에서 ‘조개껍데기’, ‘가락바퀴’ 등을 통해 신석기 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철기시대 한자와 붓이 전래되었다.(창원 다호리 유적지가 대표적)

② 고인돌 무덤은 청동기시대이다.

③ 조, 피, 수수 등의 농경 시작은 신석기 시대이다.

④ 반량전(중국 진나라 화폐), 오수전(중국 한나라 화폐)가 발견된 시기는 철기시대이다.

문12-1번

통일신라민정문서는 매년 인구, 가호, 노비 및 소와 말의 증감까지 3년을 주기로 기록한다.

문13-4번

사료에서 ‘나’라는 인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관’이라는 말을 찾으면 된다. 교관검수는 천태종을 개창한 의천의 수행논리이다.

④ 정혜쌍수는 조계종을 개창한 지눌의 수행논리이다.

문14-2번

자료에서 대성학교(안창호)와 오산학교(이승훈)설립, 평양 자기회사(도자기), 태극서관 등을 통해 1907년 신민회라는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보안회는 1904년 만들어진 단체로 일본의 황무지개척요구를 저지시킨 단체로 ‘보국안민’이라는 말을 줄여서 붙인 단체다.

③ 헌정 연구회의 후신으로 조직된 대한 자강회는 교육 진흥과 산업 육성 등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수호 운동을 전개한 단체다.(1906)

④ 대한 광복회는 의병계열과 애국 계몽 운동 계열의 비밀 결사들이 통합하여 결성한 단체다(1915)

문15-3번

사료는 ‘유교계’라는 표현과 셋째라는 부분을 보면 ‘유가에서 쉽고 정확한 법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공부만을 숭상’라는 표현을 통해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교구신론은 지배층 중심의 유교를 민중 중심의 유교로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교도 민중 교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① 문일평, ② 정인보, ④ 한용운

문16-2번

(가) 숙종때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병부대인 신기군, 보병부대인 신보군, 그리고 승려부대인 향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편성한 것은 여진족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나) 고려 성종 12년(993) 요나라 성종은 소손녕에게 수십만 대군을 붙여 제 1차로 고려를 침

공했다. 그러나 고려정부는 청천강에서 거란군을 저지시키고 외교에 능한 서희로 하여금 거란과 담판을 하게 하여 거란군이 물러나게 했을 뿐 아니라, 거란과 합의하에 압록강까지 영토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다) 이 사료는 ‘유승단’이라는 사람을 꼭 알아야 해석되는 사료가 아니다. ‘종사를 버리고, 바다 가운데 섬에 숨어’이라는 표현을 통해 몽고침략시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겨지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유승단 1168(의종 22)~ 1232(고종 19). 고려 시대의 문신으로 1232년 강화천도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자 참지정사(參知政事)로서 백성만 희생시킨다고 반대했다.

문17-1번

예송논쟁은 현종(1659-1647) 즉위 초 조대비의 복상문제로 발생한 논쟁이다.

기해예송은(1659) 조대비의 상복 기간을 서인은 1년설 반면에 남인은 3년설을 주장했으나 서인이 주장한 1년설이 채택되었다.

갑인예송은(1674) 효종비(자의대비)의 상복 기간을 서인은 9개월설 반면에 남인은 1년설을 주장 결국 남인설이 채택되었다.

문18-3번

(가) 시기는 이인좌의 난(1728년, 영조), 규장각은 정조 즉위초 창덕궁(1776)과 강화도(1781)의 두 곳에 설치하여 전자를 내각, 후자를 외각이라 하였다. 따라서 영조시기를 말한다.

- ① 당백전은 흥선대원군때 발행된 화폐
- ② 금난전권 폐지는 정조
- ④ 경기도에 대동법 실시는 광해군

문19-1번

사료에서 ‘이 도와 해설’이라는 것과 ‘겨우 열 폭’ 그리고 ‘도가 이룩되고 성인이 되는 요체’라는 것을 통해 이황의 성학십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학십도는 선조 원년(1568)에 임금에게 지어 바쳐 경연의 교재로 사용되었는데, 성리학의 요체를 도표를 곁들여 설명했다. 내용은 태극, 서명, 소학, 대학, 백록동규, 심통성정, 인설, 심학, 경재감, 속흥야매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수미법은 이이와 유성룡 등이 주장하였다.
- ③ 서경덕은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다. 노상 사상에 포용적이었던 조식은 학문의 실천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 ④ 주로 양명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학문적으로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고 양명학을 겸행하는 경우가 많았다.(양명학의 심성론을 인정) 이황은 양명학을 비판한 대표적인 학자다.

문20-2번

한국광복군(1940, 충칭), 대한광복군 정부(1914, 연해주), 영릉가전투(1932, 남만주), 봉오동 전투(1920, 만주)